

■ 센터 소장 인사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박용범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COVID19으로 활동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비대면으로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각 기획단 별로 꾸준히 활동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7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은 '세브란스와 나에게 통일이란'이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겸하여 진행되었는데, 의료원 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작품성 높은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작들은 현재 제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으로는 의과대학 전우택 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통일과 나눔 사업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를 센터 연구로 수행했었는데, 향후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외 간호대학 추상희 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한국연구재단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의과대학 염준섭 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서 통일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진행되어 왔던 통일보건의료세미나는 46차부터 52차 세미나까지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DMZ 안보관광과 판문점 견학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센터 소장 인사말

2022년은 코로나 정황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에 있어 여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통일보건의료센터와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기획단 활동을 통해 여러 일들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으니 올해도 많은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4.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박용범 올림

제7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세브란스와 나에게 통일이란”

제7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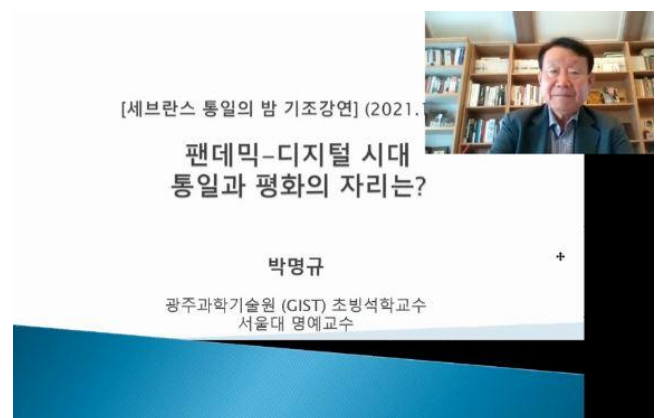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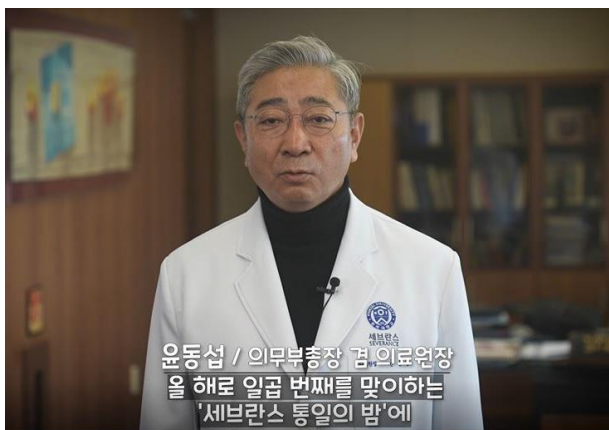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는 11월 22일 제7회 세브란스 통일의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한 영상 공모전에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제출하였으며, 행사 당일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세브란스 통일의밤은 남북통일 및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2015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이며, 코로나19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박용범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개회한 행사는 윤동섭 의료원장의 축사, ‘팬데믹-디지털 시대 통일과 평화의 자리는’을 주제로 한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의 기조 강연, 영상공모전 본선진출작 상영 및 심사위원 코멘트, 퀴즈, 공모전 수상자 발표와 시상에 이어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명규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위험은 각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유하며 미래의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통일은 1945년 이전상태로의 회복도, 한민족 혈통주의 강화도, 부국강병 전략도 아니라 남북 공동의 삶의 안녕, 공동의 안전, 함께 사는 연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임과 동시에 판데믹을 극복하는 길이고, 앞으로 한반도가 재난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과제이며, 우리의 안전, 자유 등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일종의 꽃밭이라고 표현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2014년 이래로 통일보건의료센터는 통일 후의 보건의료 분야 과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세미나와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의료원 교직원들은 물론 각 대학과 대학원의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이 도전 과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브란스 통일의 밤’을 통해 지속적인 통일 준비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7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세브란스와 나에게 통일이란”



영상공모전 시상

영상공모전은 11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심사위원 평가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및 유튜브 '좋아요' 수에 따른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의료선교센터 최원규 선교사는 영상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심사위원 6명이 접수 마감 후 열흘 간 4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데 첫째는 주제의 적합성, 둘째는 내용 구성에 있어 아이디어 전개,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및 공감할 만한 내용인지 여부와 독창성, 셋째는 내용 전달력과 표현의 우수성 및 영상의 세련미 등의 작품성, 마지막은 홍보 효과와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등 유용성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공개된 작품은 장려상을 수상한 의과대학 권성현, 한종훈 학생의 '보건의료협정', 약무국 금민정 직원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염내과 이정인 직원의 '9시 뉴스_평양세브란스 개원', 우수상을 받은 치과대학 서경진, 서영빈, 한아름 학생의 '제중원보건개발원-통일보건의료센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약학대학 류정현, 유현주, 이진환 학생의 '통일로 한 발자국: 비록 연약한 발걸음이어도', 그리고 대상을 받은 간호대학 고민정, 박소윤, 박지선, 이승현 학생의 '통일, 돌아보고 공감하다' 등 6개이다.

대상 수상팀 대표로 참석한 이승현 학생(간호학 3)은 "예상치 못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해 주신 위원 분들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함께 만드느라 수고한 팀원들에게도 고맙다. 또한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인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일과 나눔 사업 -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남북보건의료협력에 시사점을 주는 북한 출신 의료인의 건강 인식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기획한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의식 및 건강 행동 연구’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보조금 지원 사업(2021년 9월 ~ 2022년 2월)에 선정되었다.

한 사회 구성원의 건강에는 보건의료 인프라 및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인식, 건강 행동 등이 영향을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건강 연구는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북한 의료인 출신(의사, 약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이 인식하는 북한 주민의 건강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반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 의료인 출신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의식 및 건강 행동을 파악하여, 향후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 계획

2021년 12월까지 일반 북한이탈주민 20명, 북한 출신 의료인 10명과 면담을 한 결과, 북한의 보건 의료시스템 체계는 작동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물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물자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 진료보다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현실은 시, 도, 군, 리 병원의 층위에서 가장 하급병원이면서 북한 전역에 있는 리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북한 전역에 있는 리 병원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남북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보건의료물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북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물자의 현황 파악, 대북 지원, 모니터링 체계의 선순환적 구조는 1회 성의 지원이 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에서의 영유아 건강 문제 및 질병 발생 시의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점을 생각하면 시급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5년 목표, 10년 목표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통일과 나눔 사업 -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위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북한 주민과 건강한 남한 주민의 만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은 한반도 주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이라는 기초가 필요하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제 50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슬기로운 남북보건의료협력”

□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오후 6시

□ 장소 : Webex 통해 비대면 진행

강사 소개: 안명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주요경력: 현)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전)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17대 국회의원
산부인과 · 예방의학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제50차 세미나에서는 안명옥 강사가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 분단 해소의 지름길이며 국민 건강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최초 제안자로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되는 통일보건의료를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준비하는 입법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인도주의적 분야로서 남북한 신뢰 강화 및 양측간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여타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초석이자 안정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체제 저항이 적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에 대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통일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 및 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NMC공공의료사업 및 센터 연계 체계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통일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인간 안보와 건강

WHO가 정의한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현 COVID-19 사태로 모든 인간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탈북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가장 인도주의적이며 협력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통해 분단해소의 필요성까지 나아가야 한다.

제 51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의 간호원 교육제도와 통일 이후 간호인력 양성체계 구상”

□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후 6시

□ 장소 : Webex 통해 비대면 진행

강사 소개: 김진현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장)

주요경력: 현)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 대통령자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Takemi fellow

제51차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무상의료체계와 간호원 양성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 이후 비용-효과적 대안인 남한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그동안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간호인력 양성 제도와 간호서비스 제공 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저개발국일수록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간호원 교육제도

북한은 현재 2개 유형의 간호교육기관에서 6개월과 2년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원 자격은 인민위원회 보건부에서 관할하며, 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합격증명서를 받고 간호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간호원학교의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 자연과학, 기초의학에 치중하며 전문직 역량을 키우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관련 교과목이 없다. 남북한 간호인력의 역량을 비교하면 북한의 간호원이 남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구상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형평성, 실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은 필수적인 공중보건과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북한의 기존 간호원 재교육 및 거점지역 정규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차세대 교육자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제 52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천연물, 특히 인삼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사업”

□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후 6시

□ 장소 : Webex 통해 비대면 진행

강사 소개 박정일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주요경력: 현) 통일약학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 서울대학교 통일약학센터 소장
고려인삼학회 회장

제52차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공통의 국가 전략 약용작물인 인삼을 중심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약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으로서의 적절성

생약은 생산(농업), 연구, 개발, 상품화, 교육 등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수준 차이가 큰 상대와도 협력하기 좋은 소재이다. 또한 전통약은 남북 골공의 문화이며 북한은 생약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식품, 의약품 등 상대적으로 상품화하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초기 남북협력 사업의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생약에 대한 남북협력 사업의 예로는 공동 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원료생약 재배, 공동 제품개발과 교육 그리고 국제학술활동 등이 있다.

고려인삼 – 우리나라의 상징

고려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상품이며, 1,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이다. 한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약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며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천연물이다.

인삼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 사업

남북은 서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접경 지역에 남북 공동 인삼 농장을 조성하고, 기술, 자재, 인력의 상호 교환 및 지원을 통해 공동 영농 조합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량 인삼 원료를 이용하여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남북한 공동 시장을 개척하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더해 남북한 침 국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연구인력 교환, 및 공동 연구 인력 양성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술 교류도 활발히 진행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성 생약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성 인삼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세계적인 천연물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북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책임자	염준섭 의과대학 교수 (감염내과) 이혜원 객원교수 (인문사회이학교실)
발주기관	통일부
기간	2021. 7 ~ 2021. 12 (6개월)

연구과제명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책임자	전우택 의과대학 교수 (의학교육학교실/인문사회이학교실)
발주기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기간	2021. 9. 1 ~ 2022. 2.28 (6개월)

■ 기타·광고

2022년 3월 통일보건의료세미나(예정)

일자	차수	강연자	주제	장소
3.29(화)	53차	유전원	북한의 자살 담론에 대한 연구	비대면 (Webex)

